

광주일보 3·1절 마라톤 D-3 “우리도 함께 뛰다”

‘Y-MART(영암마트)’

산지 도매 농·수·축산물
대형마트보다 15% 저렴

“보다 짧고, 진취적인 모습의 Y-MART와 영암마트가 되기 위해 한 명의 낙오자 없이 하나 되어 뛰었습니다.”

대기업 유통업체의 무차별 공세에도 지역상권을 뜻있게 지키고 있는 향토 유통업체인 ‘Y-MART’ 임직원들이 제49회 광주일보 3·1절 전국 마라톤대회에 참가해 한 발 더 도약을 다짐한다. 이번 대회는 김성진 대표를 비롯해 40여명의 임직원이 5, 10km 구간을 사·도민과 함께 달려며 사업의 변장을 기원한다.

1992년 리어가 한대로 청과야채 도매업을 시작한 김성진(45) 대표는 이듬해 북구 용봉동에 26.5㎡(8평) 규모의 ‘영암농산물 직매장’ 열었고 5년 만에 528.9㎡(160평)로 매장을 넓혀 ‘영암마트’ 용봉점으로 이름을 바꿨다. 20여년이 지난 2월 현재 광주 49개소, 전남·북 9개소 등 가맹점 58개소, 종업원 수 1500여명에 달하는 중대형 유통업체로 성장했다. 당초 ‘영암마트’로 시작했으나 규모가 커지며 지역색을 너무 드러내지 않고 ‘젊다’(Young)는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 ‘Y-MART’로 바꾸었다.

최근에는 농산물의 가격 하락에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 영농조합법인

“국민 마트’ 도약 위해 뭉쳤습니다”



향토유통업체 ‘Y-MART’ 임직원들이 3·1절 마라톤을 함께 뛰며 지역상권 지키기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금정’을 열고 사용승인을 얻어 저연병 동창고를 개소했다.

Y-MART는 향후 3년 안에 전국에 가맹점 100개소를 개점해 나간다는 청사진이 있다. 우선 전남지역을 대상으로 점차 영암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 유통업체의 신화로 불리는 Y-MART의 성공비결은 ‘부지런함’과 ‘가격 경쟁력’, ‘주인의식’이다. 산지구매와 도매를 통해 직접 공수한 신선한

농·수·축산물을 대형마트보다 10~15% 가량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다. 또 현금결제를 통해 공산품의 할인 폭을 늘려 대형마트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가격 경쟁력까지 갖췄다.

Y-MART는 사랑·행복·나눔이라는 경영이념에 따라 ‘사랑나눔 봉사대’를 꾸려 지역사회에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도 펼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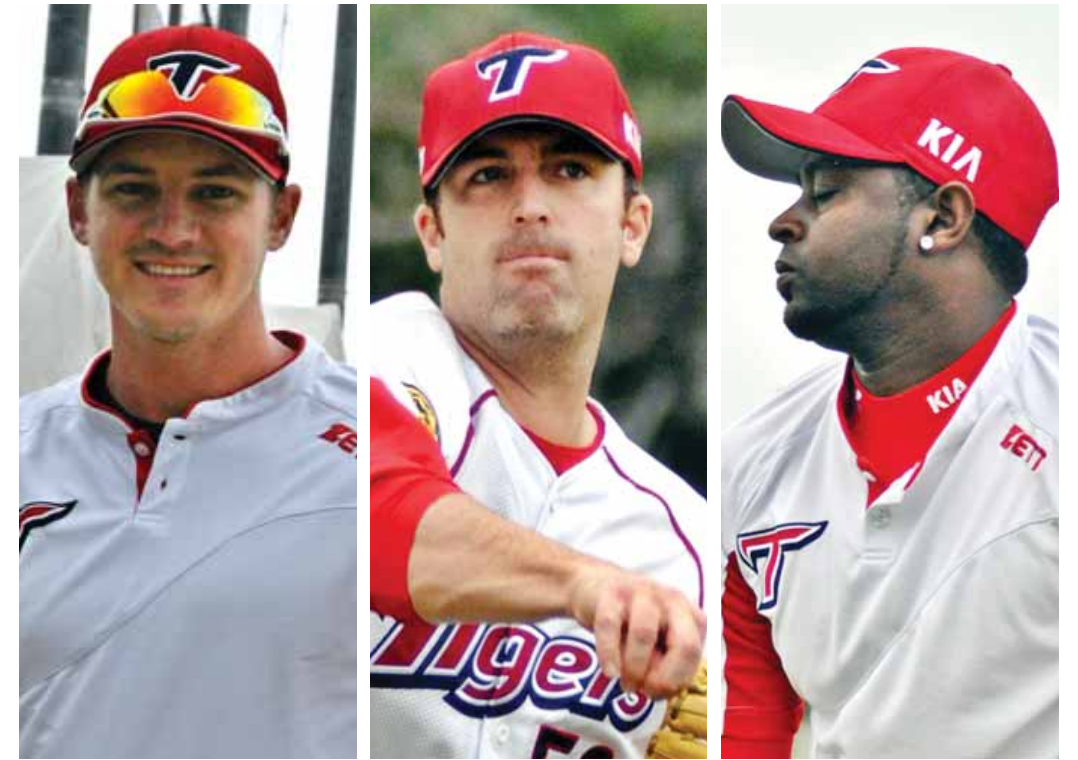
이익금의 20%는 사회에 환원한다

는 원칙을 세우고 도서관과 공부방을 후원하고 있으며, 노인정에 정수기 설치하는 등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김대표는 2~3년 안에 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재단을 설립하겠다고 포부를 갖고 있다.

최근에는 Y-MART 광주북구연합이 북구청과 ‘나눔의 행복’ 협약을 하고 매달 쌀 10kg 650포를 기부하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김여울 기자 KIA 전훈캠프 오키나와를 가다



마우리 ‘필’ 신발 ‘홀튼’ 타자 ‘어센시오’

3인 3색 ‘용병 트리오’

3인3색의 외국인 트리오다.

올 시즌 프로야구계에는 외국인 선수 제도에 변화가 있다. 기존 2명 보유 2명 출전에서 3명 보유 2명 출전으로 규정이 바뀌면서 외국인 선수들은 올 시즌 프로야구의 중요함 변수가 있다.

KIA는 2014시즌 명예 회복을 위해 투수 테니스 홀튼과 하이로 어센시오, 타자 브렛 필로 외국인 트리오를 꾸렸다. 각각 선발·마무리·중심타자의 역할을 맡게 될 이들 모두에게 한국은 처음 밟는 무대, 새로운 도전에 나선 세 선수가 오키나와 캠프를 통해 ‘호랑이 군단’ 일원으로 색을 갖춰가고 있다.

24일 한화와의 경기를 통해 시동을 건 테니스 홀튼은 ‘여우’로 통한다.

35살의 홀튼은 메이저리그 경험은 물론 세밀한 일본 무대에서도 퍼시픽리그 다승왕을 거머쥔 베테랑이다. 검증된 실력과 실력자지만 이미 일본에서 6년의 타국생활을 하면서 쌓은 노하우로 눈치 100이다. 몸관리와 시즌 준비를 알아서 잘하고 있어서 따로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물론 KIA라는 팀에도 이내 적응을 했다. 첫 실전 피칭에서 주무기인 체인지업은 핏폼 감추는 등 노련하게 시즌 준비를 이어가고 있다.

브렛 필은 선수들이 엄지 손가락을 내미는 ‘모범생’이다.

웨이트장에 가장 자주 보이는 얼굴이자 젊은 내색 하나 없이 모든 훈련을 똑같이 소화하는 모범생이다. 훈련이 끝난 뒤 공을 잡고 장비 정리를 하는 일도 마다하지 않는다.

“심지어 아침 산책까지 나온다”고 선수들이 고개를 끄덕인다. 굳이 이른 아침 산책 스케줄까지 소화할 필요가 없다고 해도 가장 먼저 나와서 기다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너무 착실하게 훈련을 하고 경기를 하다 보니 오히려 “상대팀에게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너무 순둥이 이미지로 보이지 않을까 걱정이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마우리로 투입될 어센시오는 한마디로 ‘럭비공’이다.

어디로 필지 모르는 럭비공처럼 통통 튀는 개성과 실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 홀튼과 필에 비하

‘여우’ 홀튼

몸 관리·시즌 준비 알아서 ‘척척’ 주무기 체인지업 감추는 노련함

‘모범생’ 필

웨이트장 개근·훈련 뒷정리 꼼꼼 아침 산책 스케줄까지 소화 ‘완벽’

‘럭비공’ 어센시오

낯선 문화·훈련 방식 우왕좌왕 예측 불가 개성에 실력도 갖춰

면 새로운 팀 문화와 운동 방식 등 적응이 더딘 편이다. 빅리그 경력을 갖추고 있지만 영어가 능숙하지 않아 겪는 고충도 있다. KIA는 어센시오의 완벽 적응을 위해 스페인어 통역을 구하고 있는 중이다.

아직 팀에 적응하고 있는 과정이지만 마운드에서 보여주는 실력은 관중들, 세 차례 등판에 나선 어센시오는 두 경기 연속 삼자범퇴를 기록했다. 지난 SK전에서 9회2사에서 2실점을 하기는 했지만 수비 시프트와 실책성 플레이가 더해진 실점이다.

선동열 감독은 “현재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보는 중이다. 과정이 나쁘지는 않다”며 어센시오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다.

외국인 제도에 변화가 있는 올 시즌 KIA는 선발·마무리·중심타자라는 다소 복잡한 경우의 수를 선택했다. 팀의 부족한 부분을 실력과 선수로 알차게 잘 채웠지만 변수가 많은 조합이기도 하다.

여우와 모범생 그리고 럭비공. 각각의 개성과 실력을 갖춘 외국인 트리오가 만들어낼 결과가 주목된다. /wool@kwangju.co.kr

대한요양병원

양·한방 전문의 상주

최신 설비 치료실 운영

“사랑과 믿음으로 신뢰받는 병원” 대한요양병원이 건강한 사회를 꿈꾸며 시민들과 함께 뛰었습니다.

노년성질환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대한요양병원(병원장 김병원) 임직원들이 제49회 3·1절 전국 마라톤대회에 출전해 시민들과 봄날의 질주를 펼친다.

대한요양병원은 ‘친절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모두에게 만족을 주는’ 병원을 만들기 위해 모든 의료진과 임직원들이 고객중심·직원만족·나눔·새로움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다.

최신의료시설과 풍부한 경험을 겸비한 양방과 한방 전문의 6명이 의술을 펴고 있다.

이 병원의 장점은 228병상 규모의 1등급 요양병원으로 도시에 있어 가족들이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물리치료실 내에 통증치료실과 의료치료실을 운영, 운동치료·매트보형치료·통증치료 등을 하고 있다.

대한요양병원은 의료윤리경영에 앞장서고 있다. 임원관자의 복지 향상과 정서 안정을 위해 사회복지사가 상주

“건강 사회 만들기 ‘술선수범’ 해야죠”



건강 사회를 꿈꾸는 대한요양병원 임직원들이 3·1절 마라톤대회 완주를 다짐하고 있다.

하는 사회사업들을 운영, 다양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입원환자와 보호자 간의 특성을 파악해 맞춤형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다.

이들은 3·1절 마라톤대회에 출전해 가족과 함께 달려면서 즐거운 축제의 장을 만들고, 건강한 사회를 위한 각오도 다짐 계획이다. 또 시민들의 건강

원봉사단체의 문화공연팀과 연계한 예술공연을 열어 입원환자는 물론 지역민의 문화복지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들은 3·1절 마라톤대회에 출전해 가족과 함께 달려면서 즐거운 축제의 장을 만들고, 건강한 사회를 위한 각오도 다짐 계획이다. 또 시민들의 건강

질주와 안전을 위해 마라톤대회 현장에 구급차와 의료진을 지원한다.

김병원 병원장은 “직원들이 먼저 만족해야 환자들이 알뜰히 보살필 수 있고, 그로써 환자들도 만족한다”며 “3·1절 마라톤을 통해 건강도 채우고 직원들간 화합도 다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특허방수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대한건축시험회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방수가 2~3년만 가면 된다고요? 20년은 가는데!!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1. 시공전 / 단열베이스카펫시공
 2. 단열베이스카펫 / 트라이슈머시트시공
 3. 트라이슈머 막코팅 시공
 4. 옥상 시공 후

결로·곰팡이 단열까지 한번에~!

아트패션시트® 곰팡이 결로 단열시스템

완벽한 3중 단열로 결로, 곰팡이 방지는 기본!

겨울에는 따뜻~ 여름에는 시원~ 탁월한 냉,난방비 절감효과 (20~30%)

새집증후군 예방효과, 명품디자인으로 바뀌주는 리모델링 효과까지!

이파엘지의 특허공법!!

배란다 시공전 시공후

본사 건축모델링팀 이영후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는 환경과 소비자를 위한 **저탄소 녹색(Green)환경**을 추구합니다.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광주전남대리점
 (062) 511-0444
 H.P 010-6603-0405

목포대리점 T.(061) 284-0485
 여수대리점 T.(061) 683-0485
 순천대리점 T.(061) 726-0482
 광양대리점 T.(061) 795-0485

www.IPALG.co.kr
 또는 **이파엘지.kr**